

개혁주의 해석학에 근거한 개혁주의 설교의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the Reformed Preaching Based on the Reformed Hermeneutics

총신대(신대원) 교수 김상훈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그 설교적 기초가 개혁주의라 규정하기는 어렵다. 개혁주의 설교의 의미와 그 이점이 충분히 연구되고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설교 현장에서 개혁주의라는 이름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리적 선언의 설교화나 특정한 신학적 접근으로 이해될 뿐이다. 어떤 설교를 개혁주의 설교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혁주의 설교의 범주 설정에 대한 타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1. 문제 제기와 논문의 목적

본 논문이 제기하는 세가지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설교의 정의와 범위

개혁주의 설교는 무엇인가? 어떤 설교를 또 어떤 근거로 개혁주의 설교라 할 수 있는가? 개혁주의 설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어느 특정한 신학적 관점의 설교(예컨대, 구속사적인 설교)만이 개혁주의 설교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관점이나 방향, 또는 주제를 갖고 있는 설교들을 어떤 근거로 개혁주의 설교다, 또는 아니다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개혁주의 해석학과 개혁주의 설교

개혁주의 설교를 위해서는 개혁주의 해석학이 필요하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므로 개혁주의 설교는 개혁주의 해석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가는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개혁주의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개혁주의에 근거한 개혁주의 해석학에 대한 새로운 범위 설정과 보다 종합적인 대안 노력이 가능한가? 개혁주의 성경 영감론에 근거한 개혁주의 해석학이 새로운 해석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런 연구는 개혁주의 설교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셋째, 한국 교회 설교의 개혁주의 설교의 가능성

한국 교회의 설교는 대체로 복음주의적이다. 그러나 건실한 본문 중심의 연구가 부족하다. 본문 연구가 충실히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주의적 개혁 교회의 설교자들이 성경 영감론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에 근거한 해석학적 관점의 과정적 활용과 실제적 연구를 통한

본문 해석 훈련과 설교 활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본다. 신앙적 고백이 해석학적 노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해석학적 관점이 실제적인 해석적 노력 과정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건실한 본문 연구의 결과가 현장의 영향력 있는 설교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와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 된다.

따라서 논문의 목적은 개혁주의 해석학을 개혁주의 설교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논하고 알리는 것이다. 개혁주의 해석학의 연구가 실제 현장 교회의 설교 사역에 어떻게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여 한국 교회의 설교의 개혁주의적 방향성과 이에 따른 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먼저 개혁주의 해석학의 해석적 관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개혁주의 해석 관점에 따른 해석 과정(실제)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제안된 개혁주의 해석학에 근거하여 어떻게 개혁주의 설교가 가능할지 그 설교적 다양성과 범위, 그리고 실천적 방법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혁주의 설교가 활성화 될 때 한국 교회의 설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논하려 한다.

본 논문은 개혁주의 해석학에 근거한 어떤 개혁주의 설교의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개혁주의 해석학이 어떻게 개혁주의 설교에 영향을 주는가, 또 줄 수 있는가를 논하고, 개혁주의 관점의 해석학에 근거한 개혁주의 설교의 여러 가능한 모델들을 제안하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문 중심의 해석 노력을 개혁주의 설교를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려는 것이다. 특히,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 현장의 설교(그 방법론과 주제 등에 있어)를 제한하는 것이기 보다는 더 풍부하게 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하며, 설교자로 보다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논문이 될 것이다.

2. 개혁주의 해석학의 필요

전통적 문법-역사적 방법을 고수해온 개혁주의(보수) 해석학은 새로운 역사적 사조와 함께 도전하는 다양한 해석학들과 해석 방법론들의 도전을 받아 왔다. 이들 해석학에는 역사 비평, 문학 비평, 구조주의, 서사 비평, 사회과학 비평, 수사 비평, 독자 반응 비평, 언어적 접근 등이 있다. 이런 해석적 방향들에 대해 개혁주의 해석학 진영은 대부분 거부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비평적으로) 활용하거나 해왔다.

기존 해석학을 단지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존 해석학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유용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해석학의 비신앙적 전제나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해석 과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만, 일반 해석학 전반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본다. 비판적인 접근과 활용이 필요하다.

기존 해석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복음적 개혁주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경계해야 한다. 단지 유용하다고 해서 그 전제의 문제나 과정상, 또는 방법상의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해 버린다면 개혁주의 해석학은 없다. 지난 세기들의 그릇된 역사 비평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교회들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통적 방법이 아니면 아예 받지 않거나, 전통적 방법의 한계만을 지적하고, 새로운 것들이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응전해 나갈 ‘개혁주의’ 정신은 아닐 것이다. 또 계속 새롭게 도전해 오는 여러 다양한 해석 방법론들을 필요에 따라 일부 차용해 오는 것으로 개혁주의 해석학은 만족할 수 있는가?¹

개혁주의 해석학은 문법-역사적 방법 외에는 방법론적 모색이 필요 없는 것인가? 개혁주의에 근거하여 보다 전진된 해석학, 또는 해석 방법론을 ‘개혁적으로’ 세워나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²

필자는 개혁주의 영감론에 근거한 개혁주의 해석 방법론을 제안해 오고 있다.³ 먼저 성경 자체에 대해 가장 기초가 되는 개혁주의 영감론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감론을 신앙고백적인 안으로 끝마쳐선 안 되는 이유는, 개혁주의 영감론 속에 자체적인 해석적 요구와 해석학적 방향이 드러나 있음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영감론에 의한 개혁주의 해석학의 방향

개혁주의 영감론은 세 가지이다. 이들은 축자 영감론, 유기 영감론, 만전 영감론이다.⁴ 이들 세 영감론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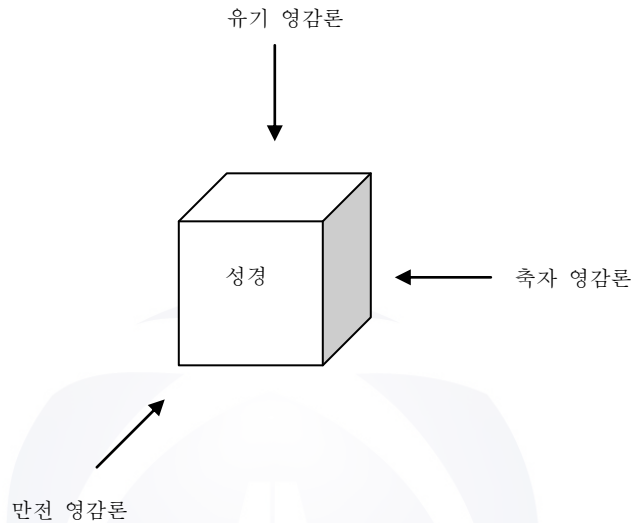
¹ 복수의 해석적 관점을 해석학에 도입하는 통합적 해석 방법론의 등장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김상훈, 2001.9, “21C 시대적 특성과 성경 해석학적 노력 배타성과 포함성의 선택”, *한국개혁신학* 9 (2001): 89-106. 김상훈, “성경본문해석을 위한 언어학적 담론(본문) 분석의 통합적 방법”, *신학학연구* 1 (2002): 101-128.

² 다만, 그럴 때 네 가지 전제가 존재한다. (1) 성경의 영감성을 전제로 할 수 있는가?, (2) 본문 중심의 해석 노력을 요구하는가? (3) 이론적, 논리적, 신학적으로 타당한가? (4)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김상훈, *해석매뉴얼, 성경해석법의 이론과 실제* (그리심, 2006[2003]): 218-219.

³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표된 본인의 글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글은 “영감된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과 개혁주의 해석학적 과제”(신학지남 271 [2002]: 112-129)였다. 그 후 “A Biblical Interpretive Attempt Based on the Inspiration Theories of the Bible, Searching for an Inspirational Reading”,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8 (Feb., 2003): 231-245 을 썼다. 이 논문의 한글본(한글 독자들을 위해 약간만 개정하고 번역한 것)이 “개혁주의 해석학을 세우기 위한 영감 해석의 제안”, *신학지남* 278 (2004 봄): 257-258 으로 나왔다. 그 후 좀더 보완되고 발전된 논문인 “영감 해석의 방법론, 평면적 관점에서 입체적 관점으로의 전환”, *신학지남* 284 (2005 가을): 183-200 을 썼다. 본 논문의 3 항(영감론에 의한 개혁주의 해석학의 방향)과 4 항(개혁주의 해석학의 제언)은 이들 선행된 세 논문에 주로 기초한다. 그리고 일부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고 첨가했다. 다만, 앞의 논문들에서는 만전, 축자, 유기 영감론 순으로 전개했으나, 본 논문부터는 축자, 유기, 만전 영감론의 순으로 바꾸었다. 설교적 관점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⁴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근거는 정창욱,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 그 성경적 근거”, *신학지남* 276 (2003 가을): 270-301.

[그림 1. 개혁주의 세 영감론]



이들 영감론을 나타내는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그린 이유는 세 영감론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도 성경 영감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 세 영감론에서 개혁주의 해석 방향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촉자 영감론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모든 세부적인 조각(부분)들의 집합으로 묘사한다. 이 조각들은 단어, 구, 문장, 단락, 장 등 본문의 언어적 요소들이다. 하나님과 인간 저자는 적절한 문법 단위들을 선택했고 이들을 적절히 본문에 배열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단어나 구 또한 본문 해석에서 중요한 것이다. 본문 생성의 과정에서, 이 단어와 구는 저자에 의해 주의 깊게 선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된 어구는 비록 다른 더 큰 언어 단위(문장, 단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 해도,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다.

저자가 그 특정한 어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귀중한 단서가 된다. 연항적으로(syntagmatically, 의미구조적 또는 연속적으로) 그리고 계열적으로(paradigmatically, 병렬적으로)⁵ 여러 연관된 어구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본문의 어구들은 독자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 저자가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스들이다.

이 촉자 영감론은 두 가지 레벨(차원)을 강조한다. 하나는 마이크로(micro), 즉 본문의 좀더 작은 단위의 레벨이고, 또 하나는 매크로(macro), 즉 본문의 더 큰 단위의 레벨이다. 마이크로 레벨에서, 영감론은 본문의 세밀한 표현(wording)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매크로 레벨에서, 영감론은 보다 큰 주제(thought)의 흐름, 또는 문장, 단락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⁵ Syntagmatic 과 paradigmatic 은 언어학자 Saussure 의 용어이다. 이 두 단어를 번역하기도 어렵지만, 이를 번역한 용어들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특히 syntagmatic 의 번역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통합적'이라 번역하는 것은 매우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연속적'이라는 말도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둘째, 유기적 영감론은 성경 본문의 생성에 하나님과 인간 저자들간의 동역에 있어 완벽한 조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성경 본문이 하나님과 인간 저자간의 이상적인 협력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에서 유기적이라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과정을 감독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이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고, 그들의 특정한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이끌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이 말씀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이다.

유기적 영감과 관련하여 본문을 볼 수 있는 틀은 내용(contents)과 형식(form, style)이다. 하나는 본문의 내용에, 또 하나는 의사 소통의 방식에 초점을 각각 둔다. 다시 말해, 본문의 신학적 내용의 해석과 함께 본문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방법론적 이해 모두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본문의 내용만 아니라, 본문의 의사소통 방식도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었고, 이끌어졌고, 영감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을 요약하면, '신학적 내용'과 '언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만전 영감론은 성경의 모든 범위가 성령에 의해 영감되었다는 개념에 근거한다. 성경 전체에 있어 예외 되는 것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성경의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이나 모두 정경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전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 내용과 부분적 단편(segment) 모두 신적인 기록물, 즉 하나님의 영감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걸작을 성경의 형태로 만들어내신 것이다.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이다. 이는 성경이 그 전체적인 내용의 설계, 즉 '신학'에 있어 하나님의 일관적인 계획성⁶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경 안의 특정한 표현의 진실성, 즉 본문의 신뢰성⁷을 또한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전 영감론은 해석 과정에서 시스템(system)과 단편(segment)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시스템'은 전체의 일관성, 즉 신학(theology)을 반영하고, '단편'은 부분적 진리성(의미, sense)을 반영한다. 성경의 시스템은,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⁶ 이 개념에 근거해서 성경 신학은 끊임 없이 연구될 수 있다. J. I. Packer 는 성경 신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 신학은 주해로 인해 발견된 것들을 주제에 따라, 또 역사적인 측면에 따라 통합하고 배열하는 학문이다. 이 신학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 전체의 총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떤 단계에서 이 메시지는 드러나는가? 전체의 계시 가운데 얼마만큼의 부분이 그 주제를 기록하는 각 저자들에게 전제되어 있는가?" 말씀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의 말씀과 연계되는 모든 질문은 성경 신학의 세밀한 내용 아래 놓여 있다. 성경 신학은 통합적, 포괄적 학문이다." J. I. Packer, "Theology and Bible Reading," in Elmer Dyck (ed.),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65-87, specifically 68.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신학화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Calvin 이다. 본문 해석과 신학 이해가 그에게는 함께 간다. 주해 결과를 효과적으로 신학화한 것이다. Thomas F. Torrance, *The Hermeneutics of John Calvin*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8), 61, 68.

⁷ Wayne Grudem 은 확언하기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거나 그릇되게 말하실 수 없으므로,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도 틀릴 수 없고 진리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은 옳다." Wayne Grudem, *Bible Doctrine: Essent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Faith*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99), 40.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G. J. Spykman, *Reformational Theology: A New Paradigm for Doing Dogmatics* (Grand Rapids, MI: Eerdmans, 1992), 123, "모든 범위에서,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성경은 영감되었기 때문에 또한 무오하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Hayes 의 언급도 주목하라. "누구도 어떤 부분이 영감된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뽑아낼 수 없다. 영감은 모든 성경에 해당이 된다. 성경에 있는 모든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이다." Bobby Hayes, "The Evangelical Doctrine of Inspiration—Restated",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Evangelical Hermeneutics*, Mal Couch (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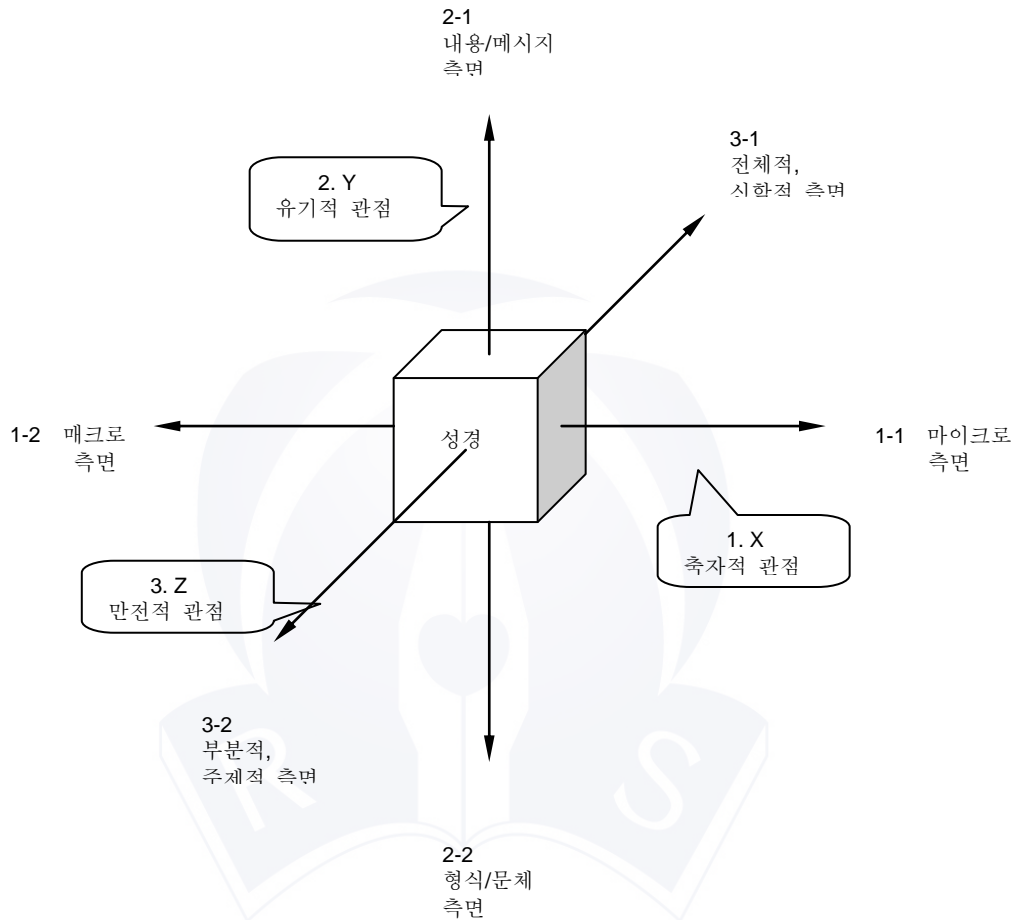
전제하는 체계적인 성경 신학에 반영된다.⁸ 부분적 단편은 영감된 전체에 대한 부분적 반영이다. 이 또한 성경 저자들(하나님과 인간 저자)에 의해 특정한 의미가 심겨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저자의 협력은 성경 본문에서 통합된 신학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또한 신학적 개념들의 여러 단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편들이 모여 축적된 전체로서 성경은 신학의 통합된 시스템과 부분적, 단면적 진리들 모두를 함께 포함한다. 이런 이해는 해석자로 성경의 통일성을 추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 성경 신학에 근거한 신학적 단편(또는 부분)들의 상호 연계성을 함께 추구해 나가도록 한다.

요약하면, 세 가지 영감론은 모두 각기 두 가지 측면의 상호 보충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축자 영감론은 마이크로와 매크로 레벨에 집중한다. 유기적 영감론은 내용과 형식에 중점을 둔다. 만전 영감론은 시스템(신학)과 단편(센스)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춘다. 각각은 그 자체로 독특한 관점과 방향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석의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어느 정도의 중복성을 가지기도 한다.

아래의 그림 1 은 세 영감론에 근거한 본문의 해석적 요구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은 이들 이론의 상호적인 연계를 보여준다. 육면체는 성경 본문(BIBLE)을 가리킨다. 본문에서 세 축(X-축자, Y-유기, Z-만전)이 나온다. 각 축이 양 면을 가지고 있다. 각 면에서는 하나의 방향성이 나온다.

⁸ 개혁주의 내에서 성경 신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구속사적(redemptive-historical) 관점일 것이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성경이 통일성 있게 영감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기계적' 영감설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Herman N. Ridderbos, *Redemptive History and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3] 1988), 49.

[그림 2. 본문의 해석 요구]



세 영감론 자체도 X, Y, Z 축으로 서로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들 영감론은 세 축을 이뤄 성경 본문을 제각기 관통하는 세 관점이 된다. 각 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나, 특정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세 관점의 축은 각기 두 측면의 방향을 갖는다. 한 축에 각기 양면적인(또는 쌍 방향의) 특징이 있다.

영감 해석의 출발은 영감론, 즉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성령으로 영감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런 이유로 성경 본문에는 해석자와 독자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읽고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해석적 힘(interpretive forces)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림 2의 세 축과 그에 따른 해석적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은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해석적 의무를 가리킨다. 즉, 해석자가 본문을 해석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이 요구하는 해석적 동인(動因, interpretive motives)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관점의 축은 셋이고, 각 축은 양 방향을 가진다. 한 축의 양 방향은 그 해석 관점의 양면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의 쌍을 이룬다. (2) 본문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그에 따른 양면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으나 이들 관점과 방향이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본문 전체에 이들 여섯 측면의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각 측면이 모두 본문 해석의 중요한 방향을 보여준다. (4) 어느 측면에서든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본문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5) 그러나 그 결과는 똑 같지 않을 수 있다. 관점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각기 독특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 모든 해석 결과를 종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합하면 풍성한 결과, 총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7) 전체의 합은 각 부분들의 합보다 적을 것이다.⁹ 그것은 각 부분의 결과(데이터)들 가운데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첫째 축: 축자 영감론에 근거한 X 관점(Verbal perspective)의 축은 말씀에 대해 성경 본문이 또 다른 두 가지 방향의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의 언어 단위와 관련하여 영감성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작은(마이크로) 단위의 본문이나, 큰(매크로) 단위의 본문 모두 중요하게 다뤄진다. 단어, 어구, 문장 하나 하나가 중요하고(1-1 Micro aspect), 이들의 더 큰 단위의 결합인 단락과 장과 권 역시 중요하다(1-2 Macro aspect). 본문은 해석자에게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평범하게 주어진 인간의 기록(또는 고백)이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말씀이 이런 양(마이크로와 매크로) 방향의 축을 갖고 있다. 이 축자 관점의 축은 작은 단위의 본문 하나 하나에 주목하게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큰 단위의 본문의 의도를 부각하여 연구하게 한다.

둘째 축: 유기 영감론에 근거한 Y 관점(Organic perspective)의 축은 하나님과 인간 저자가 손잡고 두 가지 방향으로 본문을 기록하였음을 알려준다. 하나는 본문의 내용(contents, 메시지, 2-1)이고 또 하나는 본문의 형식(style, 표현, 2-2)이다.¹¹ 둘 다 하나님과 인간

⁹ 세 축의 해석 데이터 전체의 합은 XUYUZ 로 나타낼 수 있다. 세 관점(축)의 해석을 모두 합친 결과(합집합)는 세 관점 각각의 해석 결과를 모두 합친 것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교집합의 내용)을 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UYUZ = (X+Y+Z) - (X \cap Y + Y \cap Z + Z \cap X) + X \cap Y \cap Z$

¹⁰ 각 축의 해석 방향들의 부분적인 상호 결합 관계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X, Y, Z 축의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설정한 후에 특정한 해석 결과가 어느 위치에 자리잡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 해석 데이터가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어떤 특질(어떤 측면이 어느 배율로 합쳐진 것인지)의 데이터인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등을 살필 수도 있다. 이런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¹¹ 유기 관점의 방향으로 처음 제시된 것은 본래 일반성(generality, 공통점)과 특수성(particularity, 차별점)이었다(“영감 해석의 제안”, 252-253, 257). ‘내용-형식’의 틀은 영감 해석의 전체적인 해석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별도로 카테고리화하여 따로 찾아가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런 관점을 갖고 해석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한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해석의 실제에 들어가서 그렇기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면 다른 본문과 비교해야 한다. 다른 것들과 비교나 대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본문(들)과 비교해야 하는가? 또 얼마큼(어느 범위)의 본문들과 해야 하는가? 또 그 비교에 있어 어떤 점들을 비교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해석의 실제 과정에 쉽지 않은 것이다. 또 상당 부분 만전 관점의 성경 신학적 해석 개념과 중복된다. (성경 신학에서는 주로 ‘통일성’[unity]과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이런 유의 연구는 간본문(또는 본문간의, intertextual) 연구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간본문 연구는 해석학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이다.

유기 관점을 고려하면서 특정 본문의 해석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틀은 ‘내용-형식’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일반성-특수성’의 관점은 ‘내용-형식’의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로부터 나왔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 저자의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¹² 영감의 실체에 있어 영감의 영역을 사실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 본문은 해석자에게 두 방향 모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내용과 형식이라는 양 방향의 축은 유기 관점에서 본문이 생성되었음을 되새기게 한다.

셋째 축: 만전 영감론에 근거한 Z 관점(Plenary perspective)의 축은 본문 자체가 해석자에게 양 방향의 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이기 때문에 본문 전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체계를 가진다(3-1). 본문들을 모아 연구할 때, 그 안에 일관된 사상적(신학적) 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신학적 주제 내에 점진적 발전의 형태¹³를 가진다 해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특성상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체계성의 특징을 가진다. 본문은 그렇게 제시된다. 한편, 제한된 본문에 나타난 주제(또는 내용)도 영감의 부분이므로 참되다(3-2). 본문의 참됨은 부분적인 것에도 드러난다. 물론 그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을 떠나 임의적이거나 작위적으로 발췌되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에서 관찰되고 해석되어질 때 더욱 그렇다.

본문은 만전적인(전체적인 범위의) 관점에서 볼 때, 해석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먼저, 성경 신학적인 이해, 즉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학적 이해를 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 있는 각 부분의 참됨도 존중하여 해석하라는 것이다. 한 부분, 한 부분이 소홀히 다뤄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본문의 요구이다.

4. 개혁주의 해석학의 제안

영감된 성경인 본문의 이 같은 해석적 요구를 귀담아 듣는다면 해석자는 세 축의 여섯 방향을 감안하여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¹⁴

¹² 유기 관점의 축과 관련된,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이 인간 저자에게 속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과 인간 저자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구분한다면 벌코프의 이분법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영감 해석의 제안", 246-247 을 참고하라. Louis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Sacred Hermeneutic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50), 67, 133-134 부분을 보라. 문법-역사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Poythress 도 본문의 인간적 요소(human factor)에 주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물론 하나님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Vern Sheridan Poythress, "What Does God Say Through Human Authors?", in H. M. Conn, *Inerrancy and Hermeneutic: A Tradition, A Challenge, A Debate* (Grand Rapids: Baker, 1988), 98-99. 이와 비슷한 개념은 John H. Gerstner, "Jonathan Edwards and the Bible", in John D. Hannah (ed.), *Inerrancy and the Church* (Chicago: Moody Press, 1984), 265 에도 나타난다.

¹³ 성경의 점진적 계시의 특징에 대해서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3), 27-28 을 보라. 점진적 계시의 방향과 그 틀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이 성경 신학이다. Geerhardus Vos, "The Idea of Biblical Theology", in Richard B. Gaffin, Jr. (ed.),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e Shorter Writings of Geerhardus Vo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7, 21-22.

¹⁴ 그렇다고 해석의 실제 과정에 그들 여섯 방향의 개념 모두를 한꺼번에 집어 넣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특정 방법을 독자적으로 또는 필요한 방법들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만전 관점은 해석의 범위(어느만큼의 범위를 두고 해석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축자 관점은 해석의 특징(방식, 하나 하나 주목하고 연결하여 해석해 가기)에 중점을 두고, 유기 관점은 해석의 역동성(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에 초점을 둔다.

첫째 축(축자 관점)은 해석자의 마이크로(미시) 접근과 매크로(거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표현된(기록된) 말씀(본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는 마이크로 접근의 몫이다. 한 단어, 한 어구, 한 문장의 특성에 주목하게 한다. 교회의 오래된 해석법인 문법적, 주경적 접근이 이런 해석의 한 갈래라 할 수 있다. 마이크로 접근은 특히 현대 언어학의 발전적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어의 작은 단위에 초점을 두고 단어와 어구를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는 이 태도는 특히 언어학의 구문론과 의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단어와 어구, 그리고 문장을 하나씩 세밀하게 연구해 가는 방식은 언어학적 동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구문론과 의미론의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대한 마이크로 접근의 근본 동기는 단순히 언어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원본의 한 단어, 한 단어에 영감적 선택이 있었다는 신학적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장의 작은 단위에 그렇게 주목하는 것이다. 그들 단어들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것이다. 좀더 성경 저자의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이다.¹⁵

축자 관점의 축의 다른 측면은 매크로 접근이다. 문장의 작은 단위를 넘어서는 문장과 문장의 결합(단락), 더 나아가 단락과 단락의 결합과 본문 전체적인 구도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것을 매크로 해석이라 하는데, 단락 연계 해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락과 단락의 관계를 파악하는 해석 작업을 통해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크로 해석은 현대 언어학의 담론 분석(DA, Discourse Analysis) 연구와 관련이 있다. 언어학의 구문론과 의미론이 본래 한 문장 내의 구성 요소에 주로 주목했다면, DA는 문장의 단위를 넘는 더 큰 단위의 요소들(단락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다.¹⁶

본문에 대해 축자 관점을 가질 때 본문의 작은 단위(단어, 어구, 문장)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본문의 큰 단위(단락, 장)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¹⁷ 왜 그런 특정 요소들이 그런 특정한 방식으로 저자에 의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문의 뜻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축자 관점에 근거한 해석의 초점이다.

마이크로 해석은 강해 설교 등을 해나가기 위한, 보다 작은 단위의 본문을 철저히 해석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반면에, 문맥 등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하는 매크로 해석은 본문을 전체적이고 또한 논리를 따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 해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¹⁵ 마이크로 해석은 이미 상당 부분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상훈, *해석 매뉴얼: 성경해석법의 이론과 실제* (그리심, [2003]2006)의 2-6 과(33-137)는 마이크로 해석(분석)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현대 언어학의 구문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이크로 분석은 강해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¹⁶ Noam Chomsky 이전의 언어학인 형태론, 음성론, 음운론 등 단어의 특질을 연구하는 데 치중했다면, 그의 보편 문법과 변형 생성 연구는 문장 단위의 분석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에 반해, Zellig Harris(1952)와 Mitchel(1957)에 의해 시작된 DA 는 문장을 넘어서 단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정된다. Frank Hatt, *The Reading Process: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Description* (London: Clive Bingley, 1976), 56 과 Jeffrey Reed, *A Discourse Analysis of Philipians: Method and Rhetoric in the Debate over Literary Integrity*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9 을 보라.

¹⁷ 단락의 연계에 주목하여 해석하는 매크로 해석은 그 방법론의 계발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 해석만큼의 철저한 단계적 절차를 제안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의 틀은 *해석 매뉴얼*의 7-8 과(138-181)에 나타난다. 이런 매크로적인 개념의 해석을 특정한 책(마태복음)에 적용하여 단락간의 연계를 중점으로 해석한 책이 김상훈, *숲의 해석 마태복음* (충신대출판사, 2006)이다.

둘째 축(유기 관점)은 본문의 내용(메시지) 연구와 형식(표현)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본문에 접근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저자는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형식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했다. 내용도 영감되었고, 형식도 영감되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만, 또는 인간 저자에게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용과 형식을 해석해 내는 방법은 특히 유기 관점에서 비롯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유기 관점을 잘 살리면서 실제적인 해석 작업을 하나갈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적 도구라 할 수 있다.

내용은 본문의 메시지를 말한다. 저자(하나님-사람)가 본문에서 독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때 주 메시지와 부 메시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전달되고 있는가 묻는 것이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표현의 측면은 의사전달의 형식에 대한 것이다.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할 수 있지만, 형식이 내용을 담는 틀일 뿐 아니라, 형식에 따라 내용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¹⁸, 언어의 수단인 표현 형식을 이해하는 노력은 본문 해석에 있어 무척 중요하다.¹⁹

셋째 축(만전 관점)은 먼저 해석자로 본문에 접근할 때 신학적(성경신학적)이고 체계적(한편으로 조직신학적)인 해석 방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²⁰ 특정 주제에 대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경신학적 접근이라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넓게는 조직신학적 연구도 이에 속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하다²¹

¹⁸ **의사소통의 형식에 따른 의미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은 화용학(pragmatics)이다. 화용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Leech 을 꼽는다.** Geoffrey Leech, *The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London and New York, 1983). Leech 의 이론을 성경 해석학에 적용하려 한 글로는 J. G. du Plessis, "Speech Act Theory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G H Leech's Pragmatic Principles", in Hartin & Petzer (eds), *Text and Interpretation: New Approaches in the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91), 129-142 이 있다.

¹⁹ **마이크로 분석(해석)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본문의 표현이나 내용(메시지)을 해석해 내는 해석법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방법론으로 개발될 수 있다. 마이크로-매크로 해석은 그 자체로 해석법적 절차(process)와 모듈(module)을 가지고 있는 해석 방법론이다. 유기 관점의 내용-형식 해석법도 그 같이 독자적인 해석법으로 발전될 수 있다. 좀더 자세한 방법론적 논의는 김상훈, "영감 해석의 제안", 253-257 에 나와 있다. 기존의 문학적 접근이나 언어적 접근 방식이 이런 유형의 연구와 연계될 수 있다. Longman III 이 주장하듯이, 성경은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이 전제된다면 본문 형식(형태) 또는 문체와 관련된 연구는 본문에 대한 문학적 연구 등과 맞닿을 수 있다. Tremper Longman III, 'Storytellers and Poets in the Bible: Can Literary Artifice Be True?', in Conn, *Inerrancy and Hermeneutic*, 143. **본문의 문학적성(문예성)이 본문의 영감성이나 사실성에 반(反)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 형식도 영감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성을 희생하고 표현의 문학적성을 꾸민 것으로 병행법과 같은 본문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Fuller 와 Logan Jr 의 "How does your view of inerrancy, for example, approach the parallel accounts of Jesus' statements?"에 대한 답이다. George C. Fuller & Samuel T. Logan, Jr. 'Bible Authority: When Christians Do Not Agree', in Conn, *Inerrancy and Hermeneutic*, 245.**

²⁰ **비록 성경 신학은 조직 신학과 구별하여 스스로 'descriptive discipline'으로 이해한다.** Ladd, *A Theology.*, 20-21. G. B. Caird, *New Testament Theology* (Clarendon Press, 1994), 1-3. 그러나 성경 신학도 신학적 짜임새와 전체적인 체계성이 필요한 점은 같다. 성경 신학이 점진적 계시의 특성을 강조한 신학인 점에 대해서는 Roy B. Zuck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1989), 2 와 Zuck Bock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Moody, 1994), 9-13 을 참조하라.

²¹ **적어도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특정한 성서(성경의 어떤 책)를 택하거나 성서의 그룹(바울 서신이나 요한 문헌 등)을 택해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 전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셋째, 전체적으로 주제를 연구하지만 그 주제의 성경적 흐름과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접근(시스템)은 부분적인 접근을 배제하지 않는다. 만전 관점의 축의 다른 방향은 특정 주제나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다. 전체적인 신학적 접근이 한 면이라면 다른 한 면은 부분적인 내용(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접근이다. 전체적인 연구(1-1) 없이 어떤 제한된 주제나 한정된 본문에 대한 접근(1-2)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1의 전체적 이해가 기반이 되고 해석의 큰 맥락으로 자리잡아야 하지만, 1-2의 부분적 이해 또한 가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부분적 이해는 전체적 해석과 상충될 수 없다. 전체적인 맥락과 해당 문맥을 벗어난 단편적인 해석은 본문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본문의 왜곡이다. 그렇지만 한정된 본문(범위)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진지한 관심(1-2)은 만전 영감의 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체와 함께 부분도 영감되었다. 전체와 부분이 배타적일 수 없다. 전체적 이해와 부분적 고려는 모두 중요하다. 이런 관점은 해석자로 하여금 특정 부분을 대할 때 더욱 진지하게 하고 그 본문의 가치를 존중하게 한다.

한편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분에 대한 접근은 성경신학적 해석에서 한층 작은 단위에 대한 해석 접근이라 간주될 수 있다. 전체적 해석의 작은 부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체와 부분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다만, 전체적 접근(1-1)은 통합적 특색을 띄는 반면, 부분에 대한 접근(1-2)은 특정 부분(그것이 주제이든, 본문이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불러온다.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전체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²²

이렇게 세 관점(축)의 여섯 해석 방향이 모두 해석 방법론화(methodologized)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그림 2). 해석적 접근을 다시 정리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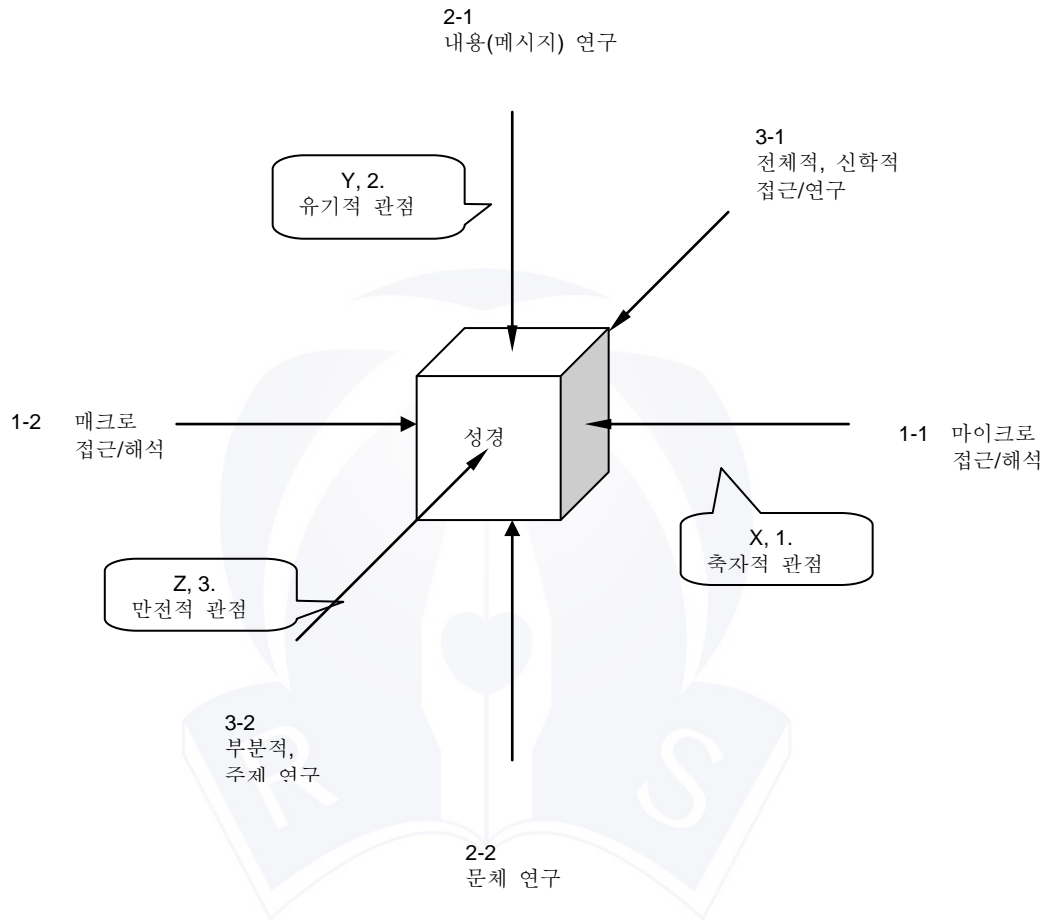
김상훈, [해석 매뉴얼, 성경 해석법의 이론과 실제] (그리심, 2003)의 9 과 “통합된 주제 해석”을 참고하라. 성경 신학의 다양한 방법론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Scott J. Hafemann (ed.), *Biblical Theology: Retrospect & Prospec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2)을 참고하라.

²² 기존의 성경 신학적 해석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 관점을 설교자와 일반인들이 성경 연구에 접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통합적인 주제 해석’이라는 해석 방법론을 제안한 바 있다(김상훈, *해석 매뉴얼*, 182-208). 이 방법론은 당연히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는 ‘만전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아직은 방법론적으로 미완의 도구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론적인 절차를 제시하려 했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그림 3. 해석의 방향과 방법]



그림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앞의 그림 1이 본문 자체에서 나오는 해석적 요구에 대한 것을 그렸다면, 그림 2는 해석자의 해석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다시 말해, 그림 1은 영감된 성경이 해석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림 2는 그에 대한 역(逆)으로 성경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석자가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방법의 성질을 보여준다. 성경 본문의 요구에 따르고 순종하는 해석법인 셈이다.²³

1) 세 축은 모두 두 가지씩의 해석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모두 여섯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물론 이들 접근 방식은 서로 중복될 수 있다. 비슷한 측면일 수도 있으나 세가지 영감이 서로 똑 같은 것이 아니듯이, 이들 접근 방식도 똑 같은 것은 아니다.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중복되는 요소가 있을 뿐이다.

²³ Brueggemann의 '해석적 복종'(interpretive obedience)의 개념이 이와 비슷할 것이다. Walter Brueggemann, *Interpretation and Obedience from Faithful Reading to Faithful Living*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1), 1. 다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해석적 복종("하나님의 요구에 주목하는 해석의 행위")이라기 보다는 성경 자체의 해석 요구에 대한 부응하는 해석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해석 내용에, 후자는 해석 방식에 초점이 있다.

2) 여섯가지 해석 접근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가지고 해석해도 본문에 대한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서로 마주보는 면은 상호 양면적인 것이다.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매크로가 그렇다. 내용-형식 연구 방식도 그렇다. 떨어져 놓기 보다는 함께 놓는 것이 좋다. 다만, 전체적-부분적 연구는 조금 다르다. 하나('전체')가 다른 하나('부분')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이 둘이 보완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축의 양면을 모두 활용하고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한 축의 두 가지를 사용하되, 다른 축들의 관점을 잊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축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²⁴

개혁주의 세 영감론은 여섯 방향의 해석학을 가능하게 한다.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런 방식의 해석을 해석자에게 요구한다. 해석자는 성경 본문 연구에 이처럼 여섯 방향의 해석적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혁주의 세 영감론에 근거한 여섯 방향의 해석 방법론을 개혁주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개혁주의 해석학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개혁주의 영감론에 근거한 성경 본문의 다층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영감론의 중심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5. 개혁주의 해석학에 근거한 개혁주의 설교의 유형

개혁주의 영감론에 근거한 개혁주의 해석학의 방향과 가능한 해석 방법론들은 X, Y, Z 축 각각에 한 쌍씩을 이뤄 전체적으로 여섯 개의 해석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서 논의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그대로 설교화하는 것은 가능한가? 각 축과 그에 따른 양 방향의 해석 방향은 설교로 전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대로 여섯 가지의 설교 유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을 설교로 전환할 때 그에 따른 여러 설교적 유형이 나타나는데, 그런 류의 설교들이 개혁주의 영감론과 해석학에 근거한 개혁주의 설교라 할 수 있겠다.

독자는 이들 유형의 대부분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일선 설교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설교 유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개혁주의 설교의 새로운 유형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존 유형의 설교들이 개혁주의적 관점과 해석과 연계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밝히고, 개혁주의 설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설교 유형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 축의 영감론과 그에 따른 양 방향의 설교 유형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축자 영감의 축(X 축)

1-1 마이크로 단위의 강해(Micro-unit Exposition)

마이크로 분석(micro analysis)은 대개 한, 두 단락의 본문을 택하여 어구 하나 하나에 초점을 두고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해 나가는 해석 방식이다. 단어, 어구, 문장 하나씩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뜻을 밝히려는 해석자의 근면한 노력은 성경이 축자 영감의 본문이라는 것을

²⁴ 성경신학적 주제 해석을 하든, 마이크로-매크로 해석을 하든, 내용-형식 연구를 하든 서로 교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제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한 단어, 한 어구, 한 문장을 그 부분에 두신 뜻을 면밀히 알고자 하고, 이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현대 언어학의 구문론-의미론에 근거한 구문 분석 방식의 본문 연구가 본문의 마이크로 분석을 철저하게 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²⁵

본문의 철저한 분석(해석)을 설교로 전환한 것이 강해 설교이다.²⁶ 본문에서 추출된 메시지를 회중에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연구된 본문의 말씀을 회중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설교화한 것이다. 철저한 주해와 구문 연구가 선행된 강해 설교가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분명한 것은 강해 설교는 축자 영감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설교란 것이다. 한 어구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미세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⁷ 이것이 성경을 영감된 말씀으로 인정하는 개혁주의적인 정신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옳다.

문제는 제대로 된 강해 설교냐 하는 것이다. 성실한 본문 연구 없는 강해 설교는 그 본(本) 취지를 잃어버린 것이다.²⁸ 강해 설교는 본래 그 본문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해가 얼마나 철저히 될 수 있는가? 강해의 철저성은 우선 본문 연구의 철저성에 근거한다. 물론 그 바탕은 축자 영감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그 어떤 어구도 무의미하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신념이다. 모든 어구를 성실히 다루겠다는 성실한 자세이다. 말씀에 충실하다는 것은 치밀한 본문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문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방법의 이점은 설교자가 성실하고 적절히 본문의 뜻을 밝힌 것이라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회중 모두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자(설교자)의 자의적인 것이 없다고(또는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그것이 설교의 권위를 살려줄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은 지나치게 문자에 매일 때 때로 지루하게 전개될 수 있다.²⁹ 적절하고, 흥미롭고 적절한 강해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데 민감해야 한다.³⁰

²⁵ 구문 분석 방식과 관련하여 Stuart, Fee, Mounce, Kaiser 등은 주목해야 할 학자들이다. Bworks 7.0 은 특정한 구문 분석의 체계화된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신약 본문을 배열해 놓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²⁶ 강해 설교는 정확한 주해를 통한 적용적 설교를 의미한다. 설교에 있어 주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Sinclair B. Ferguson, 'Exegesis', in Samuel T. Logan, Jr., *The Preacher and Preaching: Reviving the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6), 192-193 을 보라. 철저한 주해에 대해 김창훈, "강해설교의 이해", *신학지남* 283 (2005 여름): 192-211.

²⁷ 이런 설교만이 개혁주의 설교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영감된 성경을 존중하는 정신이 매우 잘 드러나는 설교 유형이다.

²⁸ 만일 본문의 한 부분(주제)만-여러 부분 중에서-을 전달하려 한다면, 2-1 의 방법의 영역에 들어갈 것 같다.

²⁹ 문자 하나 하나에 초점을 두고 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루한 것이 아니다. 본문을 풀이하는 설명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 열거적인 설명은 청중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다. 김창훈, "강해설교", 204-207. 이런 점에서 설교에 있어 적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이 있는' 설교가 아니라, '적용을 향해 나아가는' 설교가 필요하다. 류응렬, "적용을 향해 나아가는 개혁주의 강해설교", *신학지남* 283 (2005 여름), 212-232.

³⁰ 문자 여러 방법, 예컨대 대조법, 반어법, 점증법, 반복법 등의 연변적 활용 능력과 함께 설교자의 진지함, 순전함, 헌신 등의 설교자에게 필요한 본문 외적 요소들이 있을 때 설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문 외적 요소에 있어 설교자의 신실함(integrity)이 강조되기도 한다. 문병하, "21 세기 신학교육의 목표: 설교자의 신실함", *성경과신학* 34 (2003): 224-244.

1-2 매크로 단위 강해(Macro-unit Exposition)

문단과 문단의 연계에 주목하여 본문의 보다 큰 맥락을 읽어내는 매크로 해석의 결과를 설교로 전환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이 다른 유형의 설교의 보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마이크로 강해 설교에 더 넓은 문맥을 보게 하는 매크로 해석이 반영된다면, 회중에게 본문의 배경적 이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매크로 단위의 강해 자체로도 하나의 설교 유형이 될 수 있다. 그것에는 사건 기록체(narrative)의 설교, 특히 본문의 여러 단락, 여러 장을 묶어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형태의 설교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다윗의 죄와 회복’³¹, ‘엘리야의 낙심’³²을 다룬다면 본문 한 두 단락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설교의 이점은 한, 두 단락을 넘어서서 본문의 전체적 이해를 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맥(문맥)을 잡는 설교로는 적격이다. 물론 이 맥 찾기도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자 하는(다만 크게, 전체적으로) 노력의 일환이다. 반면에 단점도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강조되지만, 그러다 보면 주 메시지의 적용점이 약해질 수 있다. 스토리의 전개에 초점을 두다가 스토리의 의미가 간과되거나 적용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³³

매크로 관점의 설교도 독자적 영감에 근거한 설교법이다.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기적 영감의 축(Y 축)

2-1 내용-포인트 설교(Contents-Points Preaching)

본문이 하나님과 인간 저자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영감되었다는 것은 본문의 내용(메시지)이 인간 저자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모두 함께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의 중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영감된 말씀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다.³⁴

강해 설교의 또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세세한 어구에 집중하지 않고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고 주제화하여 그것을 설교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그 메시지가 영감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은, 어구 하나 하나에 세밀한

³¹ 다윗의 죄와 그 결과는 삼하 11-12 장에 나오지만, 그 배경과 또 그 이후의 결과를 다루려면 최소한 10 장에서 시작하여 최대 24 장까지를 본문으로 해야 한다.

³² 엘리야가 낙담한 상태는 왕상 19:1-8 에 있지만, 그 배경과 그 후속 결과에 대해 설교하려면 최소한 왕상 18-19 장을 모두 다뤄야 할 것이다.

³³ 매크로 해석에 의한 설교 가운데 narrative 본문을 다룬 설교는 소위 ‘이야기식 설교’(story-telling preaching)와 외면적으로 유사해 보일 수 있다. 이야기식 설교와 형식적인 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지만, 매크로 방식은 본문의 거시적 메시지 포인트들의 논리적인 결합성에 더 주목한다. 반면에 이야기식 설교는 본문의 내용(또는 메시지 추출 방식) 보다는 설교 자체의 이야기 형식에 더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식 설교는 뒤의 2-2의 ‘장르-문체 설교’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³⁴ 본문을 설교할 때, 꼭 어구 하나, 하나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모든 어구를 풀이해야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을 세밀히 다루는 방식이 정통 강해 설교 방식인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설교자는 이런 부분의 훈련을 강도 높게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방법만이 성경을 영감된 말씀으로 다루는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설교에 있어 본문의 핵심적, 하나의 ‘중심사상’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류응렬, “중심사상을 찾아가는 개혁주의 강해설교”, *신학지남* 285 (2005 가을): 212-232 를 보라.

관심을 갖고 해석(마이크로적인)하고 그에서 나온 말씀을 증거하는 강해 설교의 정신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단점이 있다. 본문에서 주제(메시지)를 추론해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본문을 정밀하게 보는 마이크로 방식의 강해법에 소홀해질 수 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상세한 부분들은 놓칠 수 있다. 때로 본문 연구를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이 방법도 본문 연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주 메시지와 부 메시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연습 등이 그것이다. 가급적 자의적인 해석은 삼가야 한다. 자의적인가, 본문 중심적인가에 대한 판별의 기준은 해석 데이터가 본문의 맥락과 맞아야 하고, 본문이 주는 정보들을 종합할 때의 결과와 방향에 있어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매크로 해석 설교에 비해 본문 해석의 자의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매크로적인 연구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장점은 본문 연구 후에 설교자의 자의적 방법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설교 형식의 운신이 자유롭다. 설교의 틀을 설교자가 좀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본문 연구를 통해 본문의 메시지를 열거하고, 그것을 다시 조직화하여 설교의 개요로 삼아야 한다.³⁵

2-2 장르-문체 설교(Genre-Style Preaching)

본문의 내용(메시지)만 아니라, 그 표현 방식도 영감되었다는 것은 본문의 형식을 살리는 설교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³⁶

이 부분은 범위와 관련하여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장르에 대한 것이다. 또 하나는 좀더 작은 단위의 본문 내 저자 기록의 문체(스타일)이다. 물론 특정 본문을 크게, 특정 장르로 표현하여 전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작게, 인간 저자로 하여금 특정 스타일의 본문으로 표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본문의 영감된 사실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 적어도 그렇게 허락하셨다.

장르를 살린다면, 내러티브(사건기록체) 스타일, 강화체(담화체) 스타일, 운문(시가서) 스타일, 지혜 문헌적 스타일, 예언서적 스타일이 반영된 설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⁷ 장르라 인정된다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³⁸

³⁵ 개요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³⁶ 이런 방식은 대부분 독자적인 설교로 만들어지긴 어렵다. 장르에 대한 것은 특히 그렇다. 다른 방법과 결합하여 설교가 될 것이다. 다른 설교의 보완적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특정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문체(스타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설교로 변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때 작은 단위의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마이크로 해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마이크로 해석이 구문론적이라면, 문체 연구는 병행법이나 어구 관계에 좀더 초점을 둔다.

³⁷ 기존의 내러티브 해석과 설교 등이 새로운 문학적 접근(서사 비평)의 해석법에 근거했고 때론 성경에 대한 영감된 사실의 전제 보다는 일반 문학적 전제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문제 제기가 되곤 했다. 이제는 전제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영감론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문의 장르와 문체의 영감성은 장르-문체적 연구를 해석자에게 촉구한다. 영감적 전제에 기초하되, 장르-문체의 전문적 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³⁸ 물론 해석이 아니라, 설교에까지 장르가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에 대한 해설이 꼭 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하나님과 인간 저자가 어떤 형식의 장르로 그 같은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했는가 라는 저자 중심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장르는 아니지만, 특정 본문의 세부적인 문체 스타일 연구는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체도 영감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석자가 면밀히 연구하고도 그 스타일을 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 아예 발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런 문체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난다.³⁹

그런데 어떻게 본문의 스타일을 설교에 반영할 수 있는가? 예컨대, 병행법의 경우, 병행법의 의도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병행법을 소개할 필요는 없어도 병행법이 갖고 있는 목적성, 예를 들어 반복적 강조, 연계적 이해 등의 본 뜻이 제대로 해석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당연히 설교의 메시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본문의 장르로 스타일의 이해가 설교에 반영될 때, 본문의 강조점이 좀더 드러나고, 내용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이해되고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 때 다양한 설교 방식에 대한 접근이 훨씬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단점은 장르나 문체를 제대로 고려하여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느니만 못할 수 있다. 그래도 본문에 대한 영감적 확신에 근거한 설교 유형의 다양성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만전 영감의 축(Z 축)

3-1 통합 주제 설교(Integrated Topical Preaching)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관점을 따를 때,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마음을 해석자로 갖게 한다. 그런 연구 후에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설교로 변환하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⁴⁰

이런 방식의 해석 노력에는 성경신학적 주제 연구나 조직신학적 주제 연구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연구는 신학적 훈련이 상당 수준 되지 않고는 스스로 본문을 연구하여 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반 설교자는 이미 연구된 자료를 활용하여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유형의 설교가 개혁주의 설교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어도, 만전 영감론에 근거한 개혁주의 관점의 설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때로 조직신학적 관점의 설교를 할 때,⁴¹ 예컨대 개혁주의 입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설교화하는 경우에 교회에 매우 유익을 줄 수 있다. 성경신학적 관점의 설교도 그와 같다. 구속사⁴²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시리즈로 설교한다면 이런 설교가 교인들의 성경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³⁹ 요한일서의 경우 치밀한 병행법적 구성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저자의 의미가 더 깊이 와 닿게 된다. 이런 병행법을 설교에 그대로 살리기는 어려워도 저자적 의미를 살린 설교는 충분히 가능하다. 김상훈, '요한일서의 병행법', *신학신학저널* 4(2001), 7-25.

⁴⁰ 진정한 설교의 권위가 높아지려면 영감된 말씀에 대한 성경 신학적 연구, 즉 신학적 접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Edmund P. Clowney,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61), 30-33. 류응렬, "개혁주의 강해설교가 나아가야 할 다섯 가지 방향", *신학지남* 284 (2005 가을): 216-220.

⁴¹ 조직신학적 관점을 설교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으며, 조직신학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Donald Macleod, 'Preaching and Systematic Theology', in Logan, Jr., *The Preacher and Preaching*, 246-272 을 보라.

⁴² Clowney 는 특히 구속사적 관점이 반영된 성경 신학이 설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Clowney,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63-86.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충신대학출판부, 1991): 346-

단지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할 때의 유의점이 있다.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또 너무 오래 같은 유형의 설교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설교가 강의식으로 지루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⁴³ 또 듣는 회중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⁴⁴ 설교에 있어 늘 주의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설교를 너무 이런 방식으로 오래 할 때 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설교가 주로 교리적 강의가 되고, 성경 말씀이 직접 회중에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설교는 다른 유형의 설교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통합적 주제 해석에 따른 설교도 가능하다. 통합적 주제 해석은 성경신학적 방식을 활용한 해석 방식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구절들을 모으고, 이들을 해당 주제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에, 그 분석한 결과들을 다시 종합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조직화하여, 그 주제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정리해 내놓는 것이다.⁴⁵

이런 해석은 조금만 혼란해도 가능하다. 예전의 주제 해석이 해석자나 설교자가 선호하는 관련 구절들을 뽑아내 활용한 것이라면 통합적 주제 해석은 그런 방식을 탈피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취합해서 이들을 다시 재배열, 또는 재정렬하여 활용하려 한 것이다. 이런 연구를 설교로 변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같은 해석과 설교가 만전 영감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성경 전체가 영감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그 사용례와 의미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영감의 범위가 전체적(만전적)이므로 가능한 해석 방법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설교 방식이다.

이런 설교 방식도 자체적으로 설교화가 가능하고, 다른 형식의 설교에 보완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특정 주제에 대한 통합적 내용을 갖게 된다. 주제의 풍부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은, 해당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타날 때일 것이다. 이럴 때는 구절들을 주제 각도에 따라 나눠서 한다. 또 문맥을 벗어난 구절들의 활용이 있을 수 있다. 가급적 문맥을 찾아 해석하도록 노력한다. 약간의 혼란이 필요하다. 그냥 되지는 않는다. 특히 설교로 만들었을 때, 산만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지나치게 많은 구절들이 열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대표 구절 중심으로 전개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3-2 특정(한정된) 이슈 설교(Specific [Limited] Issue Preaching)

성경 전체가 영감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것도 영감되었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의 연구도 진지할 수 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성경적 주제 연구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예컨대, 공관복음서 내에서의 하나님 나라 연구나, 바울 서신에서의

511 도 보라.

⁴³ 개혁주의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감성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초지성주의(hyper-intellectualism)라는 지적이 있다. Goeffrey Thomas, 'Powerful Preaching', in Logan, Jr., *The Preacher and Preaching*, 369.

⁴⁴ 개혁주의 설교에 있어서도 적용이 무시될 수 없다. 설교의 효과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 할지라도 설교자의 적용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John Richard de Witt, 김성한 역,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국로고스연구원, 1983):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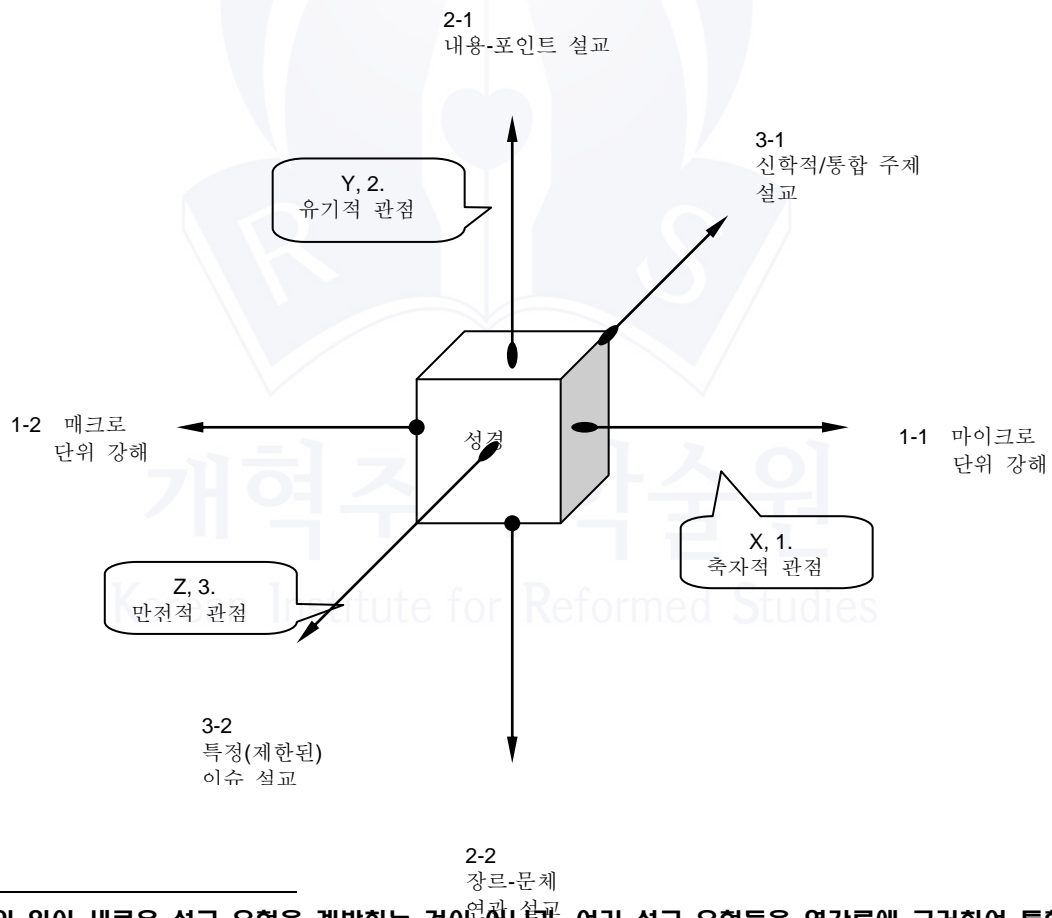
⁴⁵ 이러한 통합적 주제 해석은 본인이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김상훈, *해석매뉴얼*, 182-208. 주제 해석의 주의할 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창훈, "주제 설교의 이해", *신학지남* 282 (2005 봄): 156-182 을 보라. 김창훈 교수는 주제 설교의 적실성에 대해 설교학적 관점에서 논해주었고, 본인은 주제 설교를 위한 해석학적 과정의 철저성을 강조했다.

율법과 믿음의 주제나, 요한 문헌 안에서의 기독교어나 이런 유의 주제 연구와 이에 대한 설교적 활용은 해석자와 설교자 뿐 아니라, 듣는 회중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다. 이 같은 주제 중심적 이해를 통해 해당 본문 내의 말씀을 꿰뚫어 이해할 수 있다. 앞의 통합 주제 연구는 성경 전체와 관련된 것이지만, 특정(한정) 이슈 설교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이 다르다. 오히려 성경의 부분적인 주제도 연구되어야 하고 설교로 들려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이 역시 만전 영감에 근거한 관점이다.

만전 영감론에 근거한 설교는 이런 점에서 매우 다양해 질 수 있다. 한정된 범위의 본문에 나타난 특정 주제에 대한 해석(해설) 데이터를 활용한 설교는 실제 우리 설교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설교 유형이다.⁴⁶ 성경신학적인 연구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혁주의 설교의 측면에서 세 가지 축과 이에 따른 여섯 가지 설교 유형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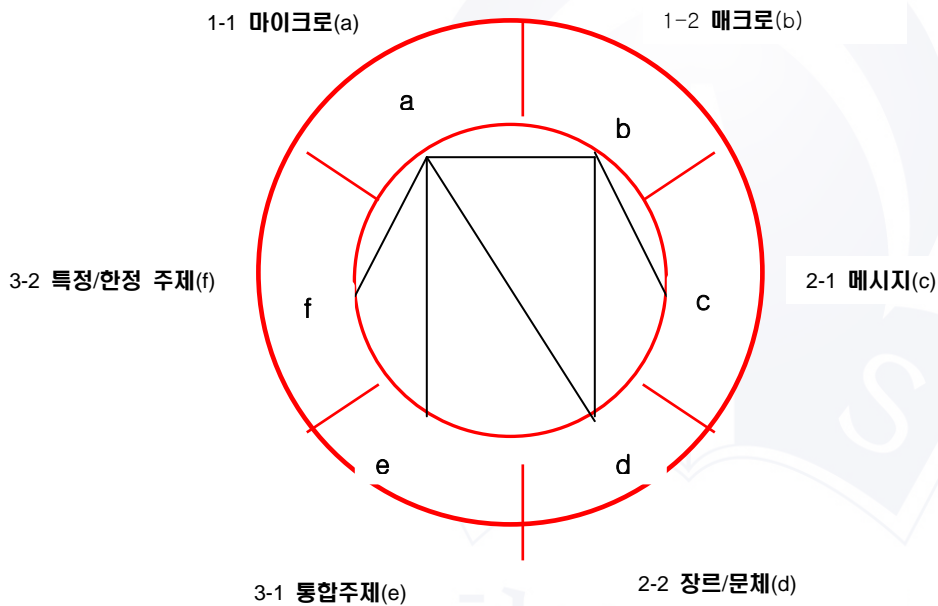
[그림 4, 개혁주의 설교 유형]



⁴⁶ 본인의 일이 새로운 설교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설교 유형들을 영감론에 근거하여 통합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영감론에 근거된 해석학적 방법론, 그리고 이에 기초한 설교적 활용의 지평을 넓히려는 것이다.

이들 여섯 유형의 설교들은 단독으로 설교될 수도 있지만, 때론 서로 조합(결합)을 이룬 설교의 유형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완될 때, 좀더 풍성한 설교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 여섯 유형들 가운데 가장 많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을 그림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⁴⁷

[그림 5. 개혁주의 설교 유형들의 조합 가능성]



[조합된 설교 유형들]

조합	유형	내용
a-b	마이크로-매크로	마이크로 분석 내용에 매크로적인 개념이 보완된 설교이다.
a-d	마이크로-장르/문체	마이크로 분석에 근거한 설교이지만, 문체 스타일의 연구 결과가 반영한다.
a-e	마이크로-통합주제	마이크로 중심의 내용에 통합 주제 연구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쓴다.
a-f	마이크로-한정주제	마이크로 본문 연구에 해당 성경 내의 특정 주제 연구가 병행된다.
b-c	매크로-메시지	본문의 메시지에 초점을 두되, 매크로적인 전체 시각(맥락)도 반영한다.

⁴⁷ 앞의 4 항(‘개혁주의 해석학의 제안’) 뒷 부분에서 보았듯이, 해석 과정에 있어 이들 여섯 방향의 해석 방법론의 결합이 가능하다면, 이들 해석 결과들을 활용하는 설교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설교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b-d 매크로-장르/문체 단락간의 맥락에 주목하면서 해당 성경의 장르가 어떻게 말씀에 영향을 주는지 살핀다.

위의 그림과 표를 보면, 매우 다양한 설교 형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개 이상 서로 조합된 설교 유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그 이상의 조합도 가능하다. 또 그림 5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은 다른 유형들과의 조합도 가능하다.

특히 마이크로(a)와 매크로(b)가 이들 결합 설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는 4 회, 매크로는 3 회 다른 유형과 결합된다. 그 외에 장르-문체(d) 형식은 마이크로와 매크로와 한번씩 결합한다. 반면에 메시지(c), 통합주제(e), 한정주제(f) 등은 각기 마이크로 또는 매크로와 결합한다.

이것은 마이크로와 매크로 형식의 설교의 유용성이 다른 형식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해 형식의 설교가 개혁주의 설교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여러 형식의 설교(독자적이든, 결합적이든)가 개혁주의 설교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6. 나가며

개혁주의 설교라면, 왜 개혁주의 설교라 말할 수 있는가? 개혁주의 성경관과 개혁주의 해석학에 근거한 설교라면 개혁주의 설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주제나 신조의 설교만이 개혁주의 설교는 아니다.⁴⁸ 또한 구속사적 설교나 그리스도 이슈의 설교만이 개혁주의 설교는 아니다.⁴⁹ 개혁주의 설교는 개혁주의 성경관에 근거하여, 개혁주의 해석학적 연구를 통해 준비된다면 개혁주의 설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개혁주의 설교 형식의 폭은 매우 넓다.

그렇다고 성경을 기초로 한 설교는 모두 개혁주의 설교인가? 그것은 아니다. 개혁주의는 개혁주의 신학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조는 뼈대를 이룬다. 성경 전체가 전달될 때 귀결되는 목표와 전제가 된다. 그러나 그 목표와 틀만을 전하고 마는 것은 골격만으로 몸을 대신(대체)하는 것이다. 골격은 몸과 함께 숨쉬며 호흡한다.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서로 연계되어 있다. 뼈대를 전제로 하되, 살이 붙은 몸(성경)의 다양한 측면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은 개혁주의 설교의 몫이다.

개혁주의 해석학은 본문 연구에 더 충실할 것을 해석자와 설교자에 요구한다. 성경은 영감된 성경이므로 설교자의 주관보다는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강하게 요구한다. 영감된 성경이 소홀히 취급될 수 없고, 영감된 사실이 한시적인 것처럼 취급될 수 없다.

필자는 한국 교회의 설교의 가장 큰 문제를 건실한 본문 연구를 소홀히 하는 데에서 찾는다. 본문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석학적 전제가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본문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면, 본문이 그렇게 소홀히 다뤄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가 제대로 해석과 설교 현장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신념과 실제의 분리 현상이다. 그래서 바른 해석학적 계발과 이에 대한 적절한 강조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한국 설교자들에게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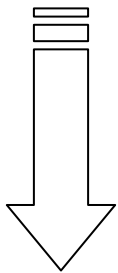
⁴⁸ **마 28:19-20의 주님 명령과 반대된다.** 주님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개혁주의는 가장 주님의 뜻과 의도에 민감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관심과 열정이 있지 않은가?

⁴⁹ **만일 그렇다면, 야고보서나 바울 서신의 권면 부분의 많은 단락들이 설교로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본문에 대한 성실한 연구 없이, 단지 현장에 대한 표면적인 관심만이 설교에 접목될 때, 설교는 일견 매우 현장적인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충실히 드러나지 못한다는 설교의 본질적인 문제에 걸린다.

따라서 개혁주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표 2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

[표 2. 개혁주의 설교 과정]



- 해석 관점 개혁주의 영감론에 근거한 해석적 관점
- 해석 과정(실제) 개혁주의 해석 관점에 따른 해석의 실제
- 해석 결과 본문 해석을 통한 결과 데이터
- 설교 작업 해석 데이터의 설교화, 현장 이해의 접목
- 설교 자세와 확신 본문을 설교할 때 필요한 설교자의 신학적 자세와 확신
- 설교 전달 효과적인 전달 방법 준비와 노력

개혁주의의 설교가 칼빈주의적 교리의 반복 강조나,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방법에만 제한될 이유는 없다. 개혁주의 영감론(축자, 유기, 만전)과 이에 기초한 개혁주의 해석학에 근거할 때, 그 이상의 풍요한 설교적 관점과 자료를 대변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풍부한 설교, 그것은 성경적 개혁주의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